

에피밸리, LED부품 생산 확대

LED용 웨이퍼 · 칩 주력 ... 매출 비중 30%에서 2010년 70%로

에피밸리는 LED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LED(Light Emitting Diode) 부품 전문기업 에피밸리는 6월22일 방송장비, 통신단말 등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LED 기초소재인 에피웨이퍼와 칩 생산에 주력해 LED 사업의 매출비중을 30%에서 2010년에는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에는 LED 에피웨이퍼 생산 핵심설비인 MOCVD(유기금속 화학증착 장비)를 발주해 2010년경 생산라인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기술력은 일본·타이완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며 “3년 안에 LED 에피웨이퍼와 칩 부문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2>